

출판동네

Publishing News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유공자 표창 박맹호 출협 회장 등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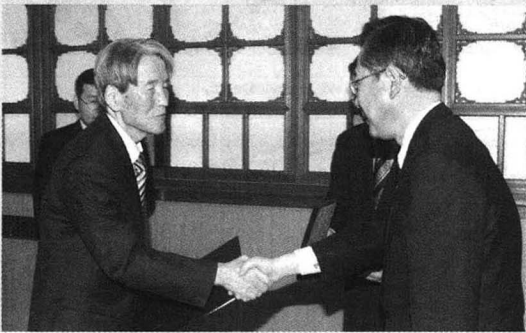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지난달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와 관련해 문화훈장 보관장을 수훈했다. 이와 함께 최선호 세계사 대표 등 39명도 함께 수상했다. 박 회장은 주빈국 행사를 성공리에 치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 대통령표창(9명)

송영만(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김혜경(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이정자(교원 대표이사), 김준희(웅진싱크빅 대표이사), 박은주(김영사 대표이사), 민경오, 양혜규(이상 도서전 조직위), 권세훈(한국문학번역원), 김기훈(문화관광부)

△ 국무총리표창(9명)

김진용(삼성출판사 대표이사), 전재국(시공사 대표이사), 채호기(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 강말실(사계절출판사 대표이사), 고홍식(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윤부한, 정순민, 김만수, 신명훈(이상 도서전 조직위)



■ 2006 서울세계북아트전 공모전 개최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주관 2006 '제3회 서울세계북아트전'에 참가할 북아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내외 북아트 작가를 발굴, 국내 북아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북아트전은 국내외 북아트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켰으며, 일반인에게도 북아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아트 산업 발전의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출품자격 : 일반 및 대학생, 외국작가

출품규격 : 작품의 사이즈는 60cm×60cm×60cm 이내, 무게는 2kg 이내로 책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만 가능하고, 설치작품 및 부서지거나 깨지는 소재, 위험한 소재 사용한 것은 접수 불가

접수기간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사업부 사업팀

서울시 종로구 시간동 105-2 (우 110-19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상금 200만 원 및 상패

- 우수상 (2명) : 상금 100만 원 및 상패

- 동 상 (5명) : 상금 50만 원 및 상패

△ 심사발표 : 2006년 5월 4일(목)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www.kpa21.or.kr), 수상자 개별 통지

△ 시상식 : 2006년 6월 2일(금) 코엑스 태평양관 서울세계북아트전 전시장(예정)

※ 모든 입선작들은 서울국제도서전(2006. 6. 2~7)과 같이 개최되는 서울세계북아트전 기간동안 전시할 예정

△ 문의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사업부 사업팀(02-735-5651)

■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독서감상문 대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4월 26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을 기념해 "온라인독서감상문대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들로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계기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관한 재미있는 교육과 홍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초(4-6학년)·중생은 학급당 2권씩 배포된 인기 작가 김진의 저작권 만화, 《카피 엔 페이스트》를 읽고 www.edunet4you.net의 독서감상문 페이지에 A4 한 장 분량의 감상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접수는 4월 15일 까지이며, 같은 달 2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진다. 참여 우수학교에게는 장관상(문화관광부), 최우수상(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우수상(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총 350만 원의 상금이, 140명의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위의 상 이외에 장려상, 입선 등 총 1,66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수여된다.

■ 중국, 대만의 저작권 관련 디렉토리 내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우리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저작권 관련기관과 단체의 정보를 담은 《중국, 대만 저작권 관련 디렉토리》를 발간했다. 책에는 중국과 대만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기관, 사법 행정기관 등의 단체 개요와 업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이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책자는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구입도 가능하다.(구입문의 : 02-2669-9935)

■ 책 본문 요약 신문 《행복한 책세상의 등대지기》 창간

어떤 책을 골라 봐야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책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는 신문이 나왔다. 도서요약 전문업체 북코스모스는 국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도서요약 전문지 《행복한 책세상의 등대지기》를 창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격주간 발행되는 이 신문은 타블로이드판 8면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도서의 요약본을 제공하며,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책 속에서 배우는 경영사례', '이 달의 책 및 신간 도서' 등도 소개한다. 총 발행부수는 20만 부로 전국 400개 대학 및 시립 도서관과 북코스모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200여 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북코스모스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유료 월간지를 통해 도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네이버와 아침독서추진본부 '학급문고 보내기 행사' 실시

아침독서운동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네이버와 아침독서추진본부가 '아침독서'를 실시중인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급에 책을 보내주는 행사를 펼쳤다. 인터넷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현재 '책 읽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지식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래 행사개요)

아침독서운동 확산을 위한 학급문고 보내기 행사(1차)

주관 : 네이버, 아침독서추진본부

후원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출판인회의, (사)좋은책읽기가족모임

신청기간 : 2006년 3월 13일~3월 31일

선정 대상 학급 발표일 : 4월 10일

신청 자격 : 현재 아침독서를 실시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지원 도서량 : 정가 기준으로 50만 원에 해당하는 도서, 책꽂이, 아침독서 운동 참고자료

지원 학급 수 : 200학급

■ 2006 서울국제도서전 6월 2일~7일 개최

2006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6월 2일(금)부터 7일(수)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

서 개최된다. 2005년 관람객 24만 명이라는 성과와 특히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보여주었던 출판계의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서 페스티벌의 장으로, 또한 한국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의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는 교양과 재미를 겸비한 참여형 도서 페스티벌을 위해 '서울도서전 신문발행' '우리 동네서점 신문 발행 콘테스트'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행사' 등을 마련, 도서전 개막 전부터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서 페스티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 이외에 '책 교환 장터-내 책 줄게 네 책 다오' '도서 퀴즈 대회' '저자와 사진 한 장' '작가의 방'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람객이 책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참가 출판사들을 위한 '신간발표회'는 시중에 나오지 않은 책을 먼저 대중에게 알리는 효과적인 책 홍보의 장이 되고, '작은 출판사를 위한 작은 도서전'을 통해서도 소규모 출판사도 도서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전시장 내에 마련되는 '에이전시 미팅룸'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 국내 출판물의 해외 수출을 적극 장려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제3회 서울세계북아트전, 제2회 신인북디자인표지상, 출판인 전문 세미나 등도 개최된다.

▶ 1부스 당 가격 : 회원사 140만 원, 비회원사 160만 원

▶ 참가신청 마감 : 2006. 4. 21.(금)

▶ 참가문의 : 출협 국제사업부 (02)735-5651 / Email : ejkim@kp21.or.kr

■ 출협, 2006 파리도서전 참가

황석영 등 '한국작가와의 만남' 비롯한 이벤트 다양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명호)는 3월 17일(금)부터 22일(수)까지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이(Parc de Versailles)에서 개최되는 2006 파리도서전에 참가했다.

출협은 세계 시장에 한국 출판물 저작권 수출 확대, 한국 출판문화의 홍보, 2006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향후 파리 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준비한 이번 전시에는 '한국관'을 마련, 한국문학 기획전시, 한국출판문화홍보 기획전시, 한국 작가와의 만남 등 풍성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저작권 계약 중심의 도서전인 것과 대조적으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전시장을 꽉 채우는 것이 특징인 파리도서전에 한국은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진흥재단의 후원으로 2003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정리=송보경 기자